이철수 '대종경' 주제 판화전 … 오늘~9일 광주 대동갤러리

"꿈이 무너져 내린 현대인들 봄바람이 꽃 피우듯 꿈과 지혜를 갖추고 생명력 발현하는 존재 되길"

"100년 전 원불교 '대종경'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으며 커다란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이번 전시는 흘러가는 지혜를 죽이지말고 다시 살려쓰자는 일념으로 지난 3년간의 결과물을 대중에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2일 오후 만난 이철수(61) 판화가는 담담하고 차분한 성격이 엿보였다. 그는 3~9일 대동갤러리에서 신작판화전 '네가 그 봄꽃 소식 해라' 전시를 앞두고 있다. 이 작가는 '대종경'을 화폭 위에 새롭게 형상화한 판화작품 203점과 서체작품 2점을 선보인다. 대종경은 소태산 대종사가 어려운 문장과 화려한 수사를 버리고 쉽게 이해되도록 편찬한 순수 한국어 경전이다.

이번 전시는 원불교가 2016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그에게 의뢰한 작업이다.

작품 설치 등 이것저것 신경쓸 게 많은 상황임에도 인터뷰에 응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모습이었다.

이 작가는 "서울에서 처음 전시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대종경을 소재로 한 작품을 낯설어했다"며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원불교가 아닌 대종경의 지혜를 전하는 자리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전시다"고 이번 전시를 설명했다.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종교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서울 전시 등에는 의외로 천주교 수녀회에서 방문하는 등 원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한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소태산 어른의 가르침은 오늘날 가장 다가오는 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현 시대는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뤘지만 점점 정신은 피폐해지는 상황입니다. 100년 전 나온 말이지만 전 세계에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원불교 신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30대 초반 '대종경'을 처음 접했고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후 판화가의 삶을 살며 영적 세계와 예술혼이 어우러진 선(禪)과 불교에 관한 작품을 선보였다. 50대 후반 다시 접한 '대종경'은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30대 때는 대수롭지 않게 봤던 부분들이 연륜이 쌓이며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만난 대종경은 그에게 큰 지혜서이자 교양서였다.

"원래 의뢰를 받기은건 100작품이었죠. 대종경을 읽다보니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지혜들이 너무 많아 밑그림을 300장이나 그렸어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추리다 보니 200점이 남게 되더군요."

2012년 작업을 시작한 이래 대종경은 삶의 일부가 됐다. 대종경이 너덜해질 때까지 읽으며 나름대로의 해석과 그림으로 소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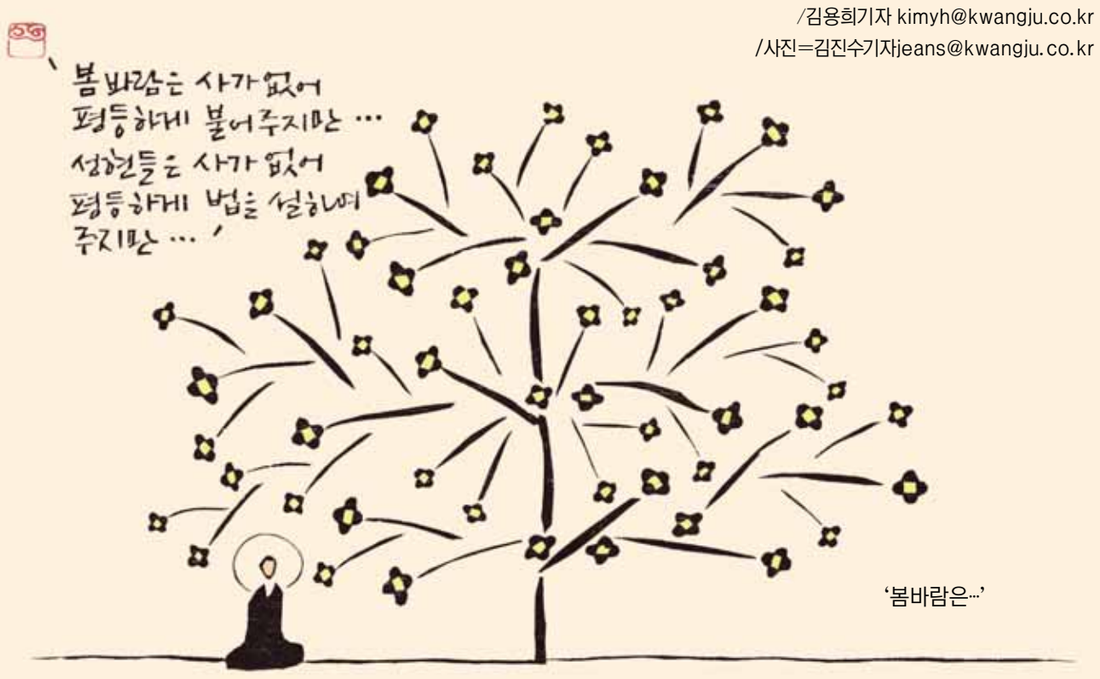
이번 전시 주제 '네가 그 봄꽃 소식 해라'는 이 작가가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문학동네에서 출간한 화집도 같은 제목이다.

"시간에 쫓기고 삶에 치어 살며 꿈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사람들 스스로 알게되는 시대에요. 봄꽃 소식은 봄바람을 뜻해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불죠. 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나무만 봄바람이 불 때 봄꽃을 피워요. 사람들 꿈과 생명력을 갖추고 봄꽃을 피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는 다음 작품 소재로 선불교의 화두집 '무문관'(無門關)을 계획하고 있다. 고차원적인 선문답을 일반인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줄 예정이다.

"잊혀져 가는 옛 지혜들이 현대 시대에 와서는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버리지 않고 생명력을 발현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의 062-222-007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jeans@kwangju.co.kr



'봄바람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뮤지컬…5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단장 윤영문)이 오랫동안 준비한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린다. 노래로 다문화 가족 친구들과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그린 '여덟 빛깔 무지개'다. 5일 오후 5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작품 배경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세계 음악축제다. 광주 무등산 초등학교 학생들은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연습이 한창이다. 어느 날 외모도 말투도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 다윗이 합창부에 들어오고, 이를 못마땅해하던 기승은 다윗이 무대에 오르지 못하도록 가짜 악보를 전달하는데….

작품은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 빛의 숲', '버스 정류장', '세계음악축제 - 떨리는 무대 위, 하나가 되다' 등 모두 7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윤영문 지휘자가 총감독을 맡았으며 김성강(남서울예술종합학교 교수)씨가 연출했다. 작곡은 이선택(성남시립합창단 전임 작곡가)씨다.

소년소녀합창단 관계자는 "이번 뮤지컬은 아시아의 문화를 광주에 꽃피우고, 특히 소외된 다문화 가정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작품"이라며 "문화도시 광주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613-8246.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박상화 작 '풍경 속으로'

미디어아트전 '7PM. 빛이 시작될 때'

10일까지 광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광주시와 GIST(광주과학기술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1주년을 기념해 10일까지 광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7PM. 빛이 시작될 때'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미디어아트·문학·음악·민속공예·디자인·영화·음식 등 7개 분야 69개 도시(32개국)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는 광주를 포함해 프랑스 리옹, 프랑스 앙기앙레뱅, 일본 삿포로 등 전세계 4군데뿐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 미디어아트 작가 10명(팀)으로 구성된 '7PM'과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등이 참여해 약 10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미디어아트가 잘 보이는 시간을 의미하는 '7PM'은 강운, 김명우, 박상화, 비빔밥(그룹), 손봉채, 신도원, 이매리, 이이남, 정선휘, 정운학 작가로 구성됐다. 나비, 낙엽 등의 영상이 투영되는 실크스크린을 헤치고 나가며 신비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풍경 속으로' 등의 작품을 통해 미디어아트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62-383-010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